

국어 영역(B형)

11

해야만 그것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 윤화정(尹和靖)의 문인들이 자기 스승을 칭찬하기를 '대단하다. 성현들의 말씀과 육경(六經)의 내용을 환히 이해하고 마음 깊이 터득하시어 마치 자신의 말을 하는 것같이 하시는가' 하였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야 글 읽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처음 글을 읽을 때는 전혀 의심이 없었는데 두 번째 읽으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여 나중에 가서는 구절마다 의심스러워진다. 이러한 과정을 한 번 거쳐야만 의심이 점차 풀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아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이해하여 전혀 의심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부했다고 할 수 있다.

- 이이, 「성학집요」 -

29. ㉠~㉤ 중, <보기>에 나타난 정약용의 독서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92X

<보기>

다산 정약용은 식견을 새로 여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는 맹목적인 독서를 혐오하였다. 정약용은 질서(疾書)의 독서 방법을 취했다. 이것은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거나 깨달은 것이 있으면 잊지 않기 위해 빨리 메모했던 독서 방법이다. 그는 질서의 핵심이 **의심**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의심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0. 뒷글에 나타난 독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을 때, 확인할 수 없는 것은? 93X

단계	독서 전략
읽기 전	· 잘못된 독서 태도를 경계하여 자신에게 맞는 독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①
읽기 중	· 글의 구조를 통해 내용을 예측하며 읽어야 한다. ②
	· 자신의 독서 능력에 맞게 독서의 분량을 조절하여 읽어야 한다. ③ · 자세히 읽기를 통해 본래의 의미를 탐색해야 한다. ④
읽기 후	· 내용을 반복적으로 음미하여 깨달은 바를 내면화 해야 한다. 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전소설

[앞부분의 줄거리] 안평국의 왕자 **적성**의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영주를 얻기 위해 서천으로 떠난다. 성의는 일영주를 구하지만 돌아오던 길에 형인 황의에게 일영주를 빼앗기고, 칼에 찔려 장님이 된다. 성의는 성에 표류하였다가 중국 사신에 의해 황제를 만나게 되고 공주의 벗이 된다.

산체적 장어

S#1

각설. 안평국 **왕비** 병세가 쾌복되었으나 성의의 사생 존물을 몰라 밤낮으로 슬퍼하더니 하루는 ① **성의** 있던 방에 들어가니 산호 서안에 만 권 서책은 의구(依舊)하나 형용(形容)*이 돈절(頓絶)*한지라. 심희 감창하여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옷깃을 적

32

시며 슬피 통곡하는데, 홀연 **기러기** 슬피 울거늘 왕비 울음을 그치고,

"네 비록 금수이나 성의의 소식을 전하고자 왔느냐?"

눈물을 금치 못하더니, 기러기 또 울거늘 께이히 여겨 **시녀**에게 묻는데, 큰 소리로 가로되,

"이 기러기는 공자가 기르시던 바이라. 연전에 공자님 임행(臨幸)시에 기러기를 쓰다듬어 경계하여 가로되, '네 나와 더불어 일기도 떠남이 없더니 내 이제 곤전(坤殿)* 환후로 하여 만리원정에 가 악을 구하여 올지라. 기간 원별을 당하며 창연한지라. 너는 모름지기 처소를 떠나지 말고 부디 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라. 만일 무슨 소식이 있거든 곧 전하라. 지금 떠나면 언제 서로 모이리요.' 하시니 기러기 대답하는 듯 울거늘 공자가 등을 어루만져 가장 사랑하시고 가신 후 우금 나가지 아니하옵기로 궁녀 등이 밥을 먹이옵더니 요새 밤이면 슬피 울거늘 이상하오나 내전이 초원(稍遠)*하옵기로 낭량이 모르심이니이다."

왕비 청파(聽罷)에 시녀 등을 대책(大責)하사 왈,

"여등(汝等)이 이런 말을 나더러 아니 한다?"

궁녀 등이 황송하와 머리를 숙이더라. 왕비 즉시 기러기를 어루만지며 가로되,

"네 비록 미물이나 네 임자 있는 곳을 알지니 서천에 들어가 살았느냐, 망망대해 중에 어별(魚鰓)의 밥이 되었느냐? 만일 살았거든 내 앞에서 세 번 올라."

이르시니, 기러기 목을 늘리어 세 번 울거늘 왕비 기뻐하시어 가로되,

→ **적성이 살아있음을 알게 됨**

"네 아는도다."

이로써 즉시 한 봉 서찰을 쓰시며 가로되,

"네 임자가 살았거든 이 편지를 전할소나?"

기러기 세 번 머리를 조아리거늘, 왕비 즉시 서찰을 기러기 다리에 매고 경계하여 가로되,

"네 두 날개로 만리를 가는 재주라 부디 이 글을 잘 전하라."

이르니, ㉠ 기러기 세 번 소리하고 두 날개를 치며 청천에 올라 운간(雲間)으로 서복을 향하여 가는지라.

S#2 (중략 지시 / **판의** ^{중략}이름)

성의 옷을 고쳐 벽옥을 따라 ㉡ **금각당**에 올라가니 공주 반겨 좌를 주고 물어 가로되,

"그 사이 께고 어떠하뇨?"

성의 큰 소리로 가로되,

"천생이 성상의 하해지덕을 입사와 아직 일신이 편하나이다."

공주 시녀를 명하여 진수성찬을 내오며 향운(香醞)*을 권하며 상을 물리매, 혹 단저도 불고 혹 단금도 회롱하며 각각 한 수시를 지어 화답하여 서로 칭찬하더니, 문득 월색이 명량하며 홀연 동남으로부터 기러기 슬피 울며 점점 가까이 와 중천에서 금각당을 맴돌아 울거늘, 공주와 좌우 시녀 나와 하늘을 우러러 살펴보고 심히 께이히 여겨서 서로 불 즙음에 성의 기러기 우는 소리를 듣고 혼백이 비월하여 생각하되, '이 짐승이 반드시 나의 기르던 기러기로다.' 하고 정신이 어린 듯 취한 듯하여 앉았더니, 기러기 두 날개를 펴며 점점 내려와 성의의 앞에 앉으며 목을 늘리어 슬피 울거늘, 성의 그제야 쾌히 본즉, 기러기 온 줄 알고 급히 두 손으로 기러기를 덤석 안고 그 등을 어루만지며 울어 가로되,

“네 이제 나를 찾아왔으니 증전께서 반드시 승하시도다.”
 언파에 엮어져 혼절하기를 좌우 시녀 놀라 급히 구할 때에
 공주 살펴보니 기러기 다리에 한 봉서 매었거늘 바삐 끌러 본
 즉 결봉에 하였도되.

‘안평국 국모는 아자 성의에게 부치노라.’

공주 이르되,

“기러기 다리에 한 봉서가 매여 있으니 그대는 정신을 수습하
 면 내 때어 읽으리니 자세히 들으라.”

이르고 **봉서**를 떼어 보니 하였도되. **33**

‘모던 모월 모일에 안평국 국모는 읍혈하고 아자 성의에게 글
 을 부치노니 슬프고 슬프다. 네 나의 슬하를 떠난 지 거의 기
 년이라. 망망천지 사이에 어느 곳에서 죽었느냐 살았느냐? 너
 의 출천지효(出天之事)로 나의 명(命)을 위하여 황당한 도사
 의 말을 듣고 부모 슬하를 떠나 만경창파에 일신을 편주에
 실어 서천에 가 일영주를 얻었으니 네 효성을 하늘이 감동하
 심이나 너의 회정(回程)하는 소식 없어 슬프다. 나의 아이
 창과 중 어별의 밥이 되었느냐? 어느 지방에 의지하여 살았
 느냐? 네 형이 일영주를 가지고 와 이르되, 네 삭발위승(削髮
 爲僧)하여 불경에 잠심(潛心)하여 부모 버리고 부귀를 부운
 같이 여긴다 하니 그 말을 가히 준신(遵信)하지 못하리도다.
 그러나 너의 사생 존물을 모르는 중이나, 일영주를 먹은 후로
 백병이 구되하여 완인(完人)이 되었으니 너의 효성은 대순
 (大舜) 증자(曾子)를 따를지라. 슬프다, 천사만량(天思萬量)
 하여도 네 형의 불측한 행실은 천고에 드물지라. 너를 시기하
 여, 노중에 불측한 환(患)을 만나 돌아오지 못함이나, 월명심
 야(月明深夜)와 일모황혼(日暮黃昏)에 망망한 천지를 부양하
 여 부르짖어 울 따름이로다. 하루는 너 있던 방에 가 고적을
 살펴본즉 슬픔만 쌓이고, 기러기 슬피 우니 이것은 내가 기르
 는 짐승인 고로 경계하고 부탁한즉, 이것이 사람의 심사를 요
 동하게 하는지라, 구만리 장천에 지향 없이 한 봉서를 부치나
 니 행여 명천이 감동하시어 소식을 천만 전할까 바라나니, 기
 러기 회편에 답서를 붙가 축수하나, 만행으로 소식을 들을진
 대 구천에 들어가도 한이 없을까 하노라. 만단수회(萬端愁
 懷)를 지리히 펴고자 하나 혈루 먼저 가리니 여산약해(如山
 若海)한 말을 다 기록하지 못하고 그만 그치노라.’

성의 정신을 차려 듣기를 다하매 가슴이 미어지고 간장이 스
 는 중 타는 중에 일변 반갑고 일변 처창(悽愴)하매, 정신이 쇠
 락(灑落)하여 바삐 일어나 배사할 제, 문득 두 눈이 번개같이
 뜨이니, 비하건대 구년지수에 햇빛을 본 듯, 칠년대만에 빗발을
 본 듯, 침침칠야에 명월을 대한 듯, 황천에서 살아온 듯, 청천에
 뛰어오른 듯, 생시인지 몽중인지 깨닫지 못하여 도리어 어린 듯
 취한 듯이 정신이 황홀한지라.

산채적장에서 벗어남

- 작자미상, 「적성의전」 -

- * 형용: 사람의 생김새나 모습
- * 곤전: 왕비를 높여 이르는 말
- * 향운: 술의 한 종류
- * 준신: 그대로 좇아서 믿음.
- * 만단수회: 마음속에 새겨진 온갖 근심
- * 여산약해: 산과 바다와 같이 매우 많음.
- * 처창하다: 몹시 구슬프고 애달프다.
- * 쇠락: 기본이나 몸이 상패하고 깨끗함.
- * 돈혈: 전혀 없음.
- * 초원: 거리가 조금 멀.
- * 회정: 돌아오는 길에 오름.
- * 완인: 병이 완전히 나은 사람

3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90%

- ① 안평국 왕비는 성의와 함께 기러기를 길렀다.
- ② 성의는 항의의 계약에 의해 서천으로 떠났다.
- ③ 안평국 왕비는 성의의 현재의 거처를 알지 못한다.
- ④ 안평국 왕비는 항의의 행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⑤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 했던 성의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32.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90%

- ① ㉠와 ㉡는 기러기라는 매개체로 인하여 연결되는 공간이다.
- ② ㉠는 왕비가 상황에 대해 슬픔을 느끼는 공간이고, ㉡는 성의와 공주가 친교를 나누는 공간이다.
- ③ ㉠는 왕비가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되는 공간이고, ㉡는 성의가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공간이다.
- ④ ㉠는 왕비가 성의의 소식을 궁금해 하는 공간이고, ㉡는 성의가 왕비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공간이다.
- ⑤ ㉠는 왕비의 지혜가 발휘되는 공간이고, ㉡는 성의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공간이다.

아까 냈고 나서 이야기가 어떻게 돼서? 변리양상은?

33. **봉서**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5%

- ① 주인공의 위기를 예고하는 복선이 된다.
- ② 주인공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계기가 된다.
- ③ 주인공이 신체적 장애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
- ④ 주인공이 주위 사람들과 겪는 갈등을 해소시켜 준다.
- ⑤ 주인공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한자성어: 반드시 모는 건 '한자성어 중점' 참고!

34. ㉠의 상황에서 왕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92%

“() (으)로 성의의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구나.”

- ① 고식지계(姑息之計)
 - ② 설상가상(雪上加霜)
 - ③ 어부지리(漁父之利)
 - ④ 천우신조(天佑神助)
 - ⑤ 타산지석(他山之石)
- 하산석이 도움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시가

[A] 지당(池塘)에 활수(活水)*이 드니 노는 고기 다 헬로다
 송음(松陰)에 청뢰(淸籟)*이 나니 금슬(琴瑟)*이 여귀 있다
 안자서 보고 듣거든 도라갈 주를 모르로다.

<제2수>

[B] 술 아래 길을 내고 못 우허 덕*될 뵈니
 풍월연화(風月烟霞)*는 좌우(左右)로 오느피야
 이 스에 한가히 안자 늘는 주를 모르리라.

<제3수>

[C] 짐 두혜 츠차리* 뜯고 문 알퐁 물근 십 기러
 기장밥 너게 짓고 산채갱(山菜羹)*므로 슬마
 조석(朝夕)계 풍미(風味)이 족(足)흙도 내 분인가 흥노라.

<제5수>

[D] 비 고프거든 버구렛* 밥 먹고 목 머르거든 바갓* 물 마시니
이리하는 가운데 즐거오미 쏘 인는다
님의외* 부운(浮雲)* 궂튼 부귀(富貴)이사 브를 주리 이시랴.
<제6수>

[E] 도원(桃源)이 잇다 호야도 네 들고 못 뺏더니
홍하(紅霞)*이 만동(滿洞)호니* 이 진짓 거괴로다
이 몸이 쏘 엇더호노 무릉인(武陵人)인가 호노라.
<제14수>
- 김득연, 「산중잡곡(山中雜曲)」 -

- * 활수: 흐르는 물
- * 정뢰: 맑은 바람 소리
- * 금슬: 거문고와 비파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닷: 축대(築臺)
- * 풍월연하: 바람, 달, 안개, 노을. 여기서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뜻함.
- * 주차리: 산나물의 일종으로 추정됨. * 산채경: 산나물로 만든 국
- * 버구렛: 바구니의
- * 바갓: 바가지의
- * 님의외: 다른 사람의
- * 부운: 뜬구름
- * 홍하: 해 주위에 보이는 붉은 노을
- * 만동호니: 끝까지 안에 가득 하니

35.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5%
- ① 영탄을 통해 화자의 반성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 ③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23%)
 - ④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
 - ⑤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3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
- ① [A]에는 [B]와 달리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주변 경치를 묘사한 후, 그 속에 머물며 즐거워 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 ③ [C]에는 [D]와 달리 화자의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 드러나 있다. (5%)
 - ④ [C]와 [D]는 모두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그린 후, 그러한 삶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 ⑤ [E]에는 화자가 처한 공간을 이상향에 견주어 그곳에서 살아가는 화자 자신의 자긍심이 드러나 있다. ○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소설

심란한 것뿐, 무슨 이렇다할 병이 있어서도 아니요 자기 체질에 저혈(豬血)*이 맞으리라는 무슨 근거를 가져서도 아니었다. 손이 바쁘던 때는, 어서 이 잡무에서 헤어나 조용히 쓰고 싶은 것이나 쓰고 읽고 싶은 것이나 읽으리라 염불처럼 외워 왔으나 이제 막상 손을 더 대려야 댈 수가 없게 되고 보니 ㉠ 그것들이 잡무만은 아니었던 듯 와락 그리워지는 그 편집실이요 그 교실들이었다.

사람이 안정한다는 것은 손발이 편안해지는 데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운 한동안 문을 닫고 손발에 틈을 주어 보았다. 미닫이 가까이 앉아 앙상한 영두나뭇가지에 산새 내리는 것도 내다 보았고 가랑잎 구르는 웅달진 마당에 싸락눈 뿌리는 소리도 즐겨 보려 하였다. 그러나 하나도 마음에 안정을 가져오지 않을 뿐 아니라 점점 신경을 날카롭게 메마르게 해주는 것만 같았다. 이번 사냥은 이런 신경을 좀 녹여 보려는 한갓 산책에 불과한

것이였다.
한운 즐거웠다. 오래간만에 학생 때 친구 유을 만나는 것도 반가웠다. 편지 한 장으로 구경을 생각하여 모든 것을 주선해 놓고 부르는 그의 우정이 감사하였다. ㉡ 오래간만에 손길을 걸을 것, 험준한 산마루를 달려 볼 것, 신에게서 받은 자세대로 힘차게 가지를 뺨은 정정한 나무들을 쳐다볼 수 있을 것, 나는 평을 떨구고, 달는 노루와 멧도야지를 고꾸라트릴 것, 허연 눈 위에 온천처럼 용솨음쳐 흐를 피, 통나무 화롯불에 가죽재 구워 뜯을 짐승의 다리, 생각만 하여도 통쾌한 야성적인 정열이 끓어올랐다. 아무리 문화에 길들였어도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야성에의 향수가 늘 대기하고 있는 듯하였다.
→ 39번에 따지면 '일상적인 공간' <중략>

[중략 부분의 줄거리] 사흘째 되는 날, 한운 늙은 포수가 커다란 멧도야지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런데 누군가가 멧도야지의 일부는 떼어가고 일부는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다. 늙은 포수는 범인을 잡기 위해 물이점으로 부르던 산골 사람들에게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게 하여 물에 기름기가 뜨는지 확인하려 한다.

좌중이 일시에 눈들이 서로 손으로 갔다. 모두 들썩은 가진 손이었다. 모두 울퉁불퉁 마디들이 험한 손이었다.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고 시키는 대로 할 뿐인, 죄 없는 손들이었다. 더구나 피로 살지 않고 힘으로 살기에, 도회지 사람들의 발보다도 더 험해진 그 순박한 손들에게 이런 야박스런 모욕이란 생후 처음 들일 것이였다.

한운 한편이긴 하나 늙은 포수가 오히려 알미었다. ㉢ 이 자리에 한 손도 그 죄의 기름이 뜨는 손은 없기를 바랐다. 그러나 데운 물그릇이 나오기 전에 여러 사람의 시선을 혼자 쪼이는 손이 있었다. 곤색 양복 조끼의 손이었다. 깍지도 껴보고, 무릎 밑에 깔아도 보고, 허리춤을 급적거려도 보고, 나중에 완전히 떨어져 곰방대를 내어 담배를 담았다.

눈치 빠른 늙은 포수는 얼른 끼고 앉았던 화로를 내밀었다. 담뱃불을 불이느라고 길게 뻗 고개가 어딘지 어색할 뿐 아니라 불에 갔다 대는 대통이 덜덜 떨리었다. 늙은 포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저 사람이 담뱃 붙여, 뭘 붙여?”
양복 조끼는 그만 입에서 놓쳐 버린 곰방대를 화로에서 집노라고 쨍쨍매었다. 늙은 포수는 옹망한 눈으로 그를 할퀴듯 쏘아 보았다. 그만 양복 조끼의 얼굴은 화로보다도 더 이글거렸다. 늙은 포수는 문을 열어 갖히며 안으로 소리를 쳤다.
“취인장? 물 데 내올 것두 없쇠다.”

그리고,
“한 사람만 남구 죄 없는 분들은 하나씩 일어나 나가슈.”
하였다. 끝내 못 일어서기는커녕, 고개도 못 들고 남아 있는 것이 이 양복 조끼였다. 늙은 포수는 어느새 철썩 그의 귀매기 같았다.

결국 구장이 나와, 자기 동리에서 생긴 불상사를 사과하였고, 이쪽의 처분을 기다리노라 하였다. 늙은 포수에게서는 이내 계산이 나왔다.

“피가 그 돼지한테서 다섯 사발만 나왔겠소? 소불하* 다섯 사발 치구두 오십 원허구, 쓸개가 어제 저 사람 제 입으루두 사십 원차린 염려없을 게라구 그랬소. 사십 원허구, 뒷다릴 함 부루 썰어 놔으니 가죽이 못쓰게 되잖었소? 가죽값 십 원만

SH 1

허구. 백 원만 물어 노수. 오늘 이 지경 됐으니 사냥할 맛 있게 됐소? 오늘 하루두 우린 손해요."

"참, 손해가 많으시군요! 허나 이 사람이야 단돈 십 원을 해 낼 주제가 어디 되나요. 요 녀머 이 사람 사춘이 한 분 계시니 내 넘어가 의논허구 과히 억울치 않투록 마련하오리다. 아무튼 주재소에만 알리지 말구 내려가 기다려 주시지요."

㉔ 늙은 포수는 주재소 말이 저쪽에서 나온 김이라, 오후 세 시까지 기다려서 소식이 없을 때는 주재소에 고소를 한다고 하였고.

"저따위 덜된 자식은 몇 해 감악소 밥을 맥여야 사람 구실을 할 거요."

하고 울러메었다.

아무튼 도야지를 각을 떠 석 점이나 지워 가지고 거리로 내려왔다. 식전에 십 리 길을 걸은 속이라 모두 시장했으나 한 사람도 고기 맛이 있을 리 없었다. 뒷일은 늙은 포수에게 말기고 한과 운은 젊은 포수를 데리고 뺑 사냥을 나갔다가 어스름해서야 돌아와 보니, 일은 더욱 상서롭지 못하게 변져 있었다.

양복 조끼의 사춘형이 돈 삼십 원을 주며, 이 돈만으로는 포수가 들을 리가 없으니 또 주재소에서도 소문으로라도 벌써 모르고 있을 리 없을 것이니, 주재소로 가서 때리는 대로 맞고, 그저 죽을 때라 잘못했노라 하고, 이 돈 삼십 원밖엔 해놓을 수가 없으니, 이 돈으로 무사하게 처분해 달라고 빌라고 일러 보냈는데 돈 삼십 원을 넣은 양복 조끼는 주재소로도 포수에게로도 나타나지 않았다. 밤이 이슬해서는 그가 월정리역에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차표 사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까지 퍼지었다.

S#3 사냥은 이렇게 마치고 말았다. → 39번에 따르면 '비밀상적인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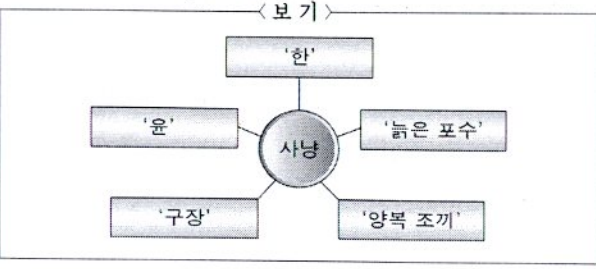
차가 창동을 지나니 자리가 수선히지는 바람에 한은 깜박 들었던 잠을 깨었다. ㉕ 짙이 있는 서울이 가까워 온다. 그러나 한은 조금도 반감지 않았다. 그는 생각하였다. 단돈 삼십 원으로도 달아날 수 있는 그 양복 조끼에게는 세상이 얼마나 넓어야 싶었다. → 39번에 따르면 '일상적인 공간'이다.

* 저렬: 돼지의 피 * 소불하: 적게 잡아도

37. 앞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00%

- ①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②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시켜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③ 과거 사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여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38. <보기>는 '사냥'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90%



- ① '한'은 어떤 이도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의 범인으로 밝혀지지 않기를 바란다. ○
- ② '늙은 포수'는 사냥에서 얻은 포획물이 '양복 조끼'에게 훼손당하여 손해를 입는다. ○
- ③ '운'은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의 범인이 밝혀진 것에 대하여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X
- ④ '한'에게 있어서의 사냥은 '늙은 포수'와 달리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에 대한 갈망이다. ○
- ⑤ '구장'은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를 해결하기 위해 '늙은 포수'와 '양복 조끼'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

39. <보기>를 참고하여 ㉑~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75%

<보기>
 이 작품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비밀상적인 공간으로, 다시 일상적인 공간으로 회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주인공은 일상적인 삶의 공간인 도시에서 벗어나 비밀상적 공간인 야성의 세계를 찾아가는다. 그러나 그곳 역시 매물칸 계산의 논리와 위압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라는 것을 확인하며 다시 도시로 돌아온다. 어떤 공간에서든 질곡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① ㉑: '편집실'과 '교실'은, 식민지 지식인이 찾아가고 싶어 하는 비밀상적 공간이군. X : 일상적 공간
- ② ㉒: '촌길'과 '힘준한 산마루'는, 야성의 세계에 대한 인물의 지향을 보여주는 공간이군. ○
- ③ ㉓: '이 자리'는, 야박하고 계산적인 논리에 의해 삶이 속박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공간이군. ○
- ④ ㉔: '주재소'는 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비밀상적인 세계도 위압에 의해 지배됨을 보여주는 공간이군. ○
- ⑤ ㉕: '서울'은, 질곡의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주는 공간이군. ○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시

(가)
 하루해
 너의 손목 싸워면
 고드름은 운하(運河) 못 미쳐
 녹아 버리고.
 풀밭
 부러진 허리 겨건지다 보면
 밀동 긴 폭포(瀑布)처럼
 역사(歷史)는 철철 흘러가 버린다.
 피다순 쪽지 잡고
 너의 눈동자형(嶺)넘으면
 정전지구(停戰地區)는
 바심*하기 좋은 이슬젖은 안마당.
 고동치는 젓가슴 뿌리세우고
 치솟은 삼림(森林) 거니노라면
 초연(초煙)* 걸린 밭두덕 가
 새벽 열러라. 부러야, 끝나라!
 -신동엽, 「새로 열리는 땅」 -

4번 문제의 <보기>에서 이 글이 '분단'의 상상을 각인 시켰음을 확인한 주제!

- * 정전지구: 일시적으로 전투가 중지된 지역
- * 바실: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낱알을 거두는 일
- * 초연: 화약의 연기

(나)

아마 무너뜨릴 수 없는 고요가
 공터를 지배하는 왕일 것이다
 빈 듯하면서도 공터는
 늘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
 공터에 지는 바람 봄비는 바람,
 때때로 바람은
 숨털에 싸인 풀씨들을 던져
 공터에 꽃을 피운다
 그들의 높고 시듬에
 공터는 말이 없다
 있는 흙을 베풀어주고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무심히 바라볼 뿐.
 맑은 날
 공터를 지나가는 도마뱀
 스쳐가는 새가 말자국을 남긴다 해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빗방울에 자리를 바꾸는 모래들,
 공터는 흔적을 지우고 있다
 아마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고요가
 ㉠ 공터를 지배하는 왕일 것이다

'공터'는 가득 차 있다?는
 방상호 시인 시 100

→ 공터엔 참 많은 것이 있었어? 최승호 「공터」 -

4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81%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시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수미상응의 구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5%

〈보기〉
 신동엽의 현실 인식은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에 머물지 않고
 '있어야 할 현실'을 지향한다. 이 시에서도 분단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동질성이 회복된 현실에까지 나
 아가고 있다. 결국 이 시에서 '있어야 할 현실'은 민족 공동체의
 염원과 기대가 담긴 민족 화합의 장이다.

- ① '고드름'은 공동체의 동질성이 회복된 민족 화합의 현실로 볼 수
 있다. X: 분단의 현실
- ② '부러진 허리'는 민족 공동체의 분단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
- ③ '역사는 철철 흘러가 버린다.'는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6%)
- ④ '정전지구'는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O
- ⑤ '새벽 열려라.'는 민족 공동체의 염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O

4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 ① 화자의 방황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 ② 화자가 통념과 달리 새롭게 바라보는 대상이다.
- ③ 화자의 세계에 대한 대결 의지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④ 화자가 낮은 세계를 동경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대상이다.
- ⑤ 화자의 삶이 투영되어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대상이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B형 통합 극

[앞부분 줄거리] '현'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할아버지와 현실
 을 개혁하려는 삶을 살았던 아버지 사이에서 방황하는 지식인이다. '현'은
 일제 강점기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주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평범한 생활
 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은 월북했다가 625때 돌아온 친구 '연호'가 주도
 하는 인민재판에 분노하여 충을 난사하고, 자신도 충상을 입은 채 동굴로
 피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S#53. 읍내 플랫폼 과거
 이른 새벽, 안개 속에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길 떠날 차림의
 현과 고영감, 어머니가 온다. 플랫폼에서 여남은 장 ㉠ 지천 다발을
 꺼내더니.

고영감 아랫말 과수원 판 돈이며, 헛되이 쓰지 말구 꼭 대학에
 붙어서 판검사가 되어 혀.

공손히 받는 현.

고영감 네가 우리 집안에 기둥이 되어 혀. 부디 성공을 해라.

이윽고 먼 기적 소리. 기차가 들어온다.

현 그럼, 할아버님.

고영감 오냐. 일본에 가 거처를 정하걸랑 곧 연락을 혀. 돈도 필
 요하면 더 보낼 테니께.

현 (어머니를 돌아본다.)

현모 내 걱정 말구 아무쪼록 객지에서 몸 성히 다녀와라.

눈물고인 시선 꼭 손목을 잡아준다. 기차에 오르는 현. 저만치
 역 구내에 영순이가 서 있다. 가만히 손 들어주는 현. 영순 돌아
 서 온다. 이윽고 ㉡ 발차 신호. 천천히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
 다. 점차 멀어지는 그들. 손을 흔드는 현.

S#54. 기차 안

차창에 앉은 현. 멀어져가는 고향 풍경. 자꾸 뒤돌아본다. 기차
 가 터널로 들어간다. 어두워지는 주위. 웬일일까? 기차만 가고
 현만 남아 있다. 이상하다. 동굴 안에 달랑 남아 꿈결인 양 둘러
 보는 현. 44-0

S#55. 동굴 안(밤) 전서

동굴 속에 앉아 있는 현. 몽롱한 의식 속에 괴로워하다가 퍼뜩
 눈을 뜬다. 뚝, ㉢ 떨어지는 물방울. 아, 역시 동굴 속이라 정신
 을 가다듬어 내다보는 현.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다.
 점점 기력이 쇠진하고 의식이 몽롱해지는 현. 상처 찜시는 다리
 에 가만히 손을 댔다가 눈앞에 가까이 본다. ㉣ 걸쭉은 핏자국.
 가쁜 숨결. 이윽고 헛소리 하는 현.

..... 죽는 걸까? 여기서 이대로 죽는 건가? 맥박이 뭘 적마다
 피가 흐른다. 몇 시간이나 더 지탱할 수 있을까..... 아니 그놈
 이 울 텐데...... 그놈은 꼭 오고야 말 것이다."

메마른 입술. 전신을 스치는 소란. 현, 충신을 잡고 고통에 쟁

그러며 가만히 일어난다. 지레 문 어금니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 온다. **현** 다리를 끌고 나가 동굴 입구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마신다. 얼굴을 적시는 빗줄기. 어두운 계곡에 뽀얀 물보라. 저 멀리 마을 쪽에 **㉠** **예광탄** 하나가 밤하늘을 굶는다. 흠뻑 놀라는 현. 충신을 거머쥐고 겨냥하며 슬금슬금 안으로 든다. 마치 게 한 마리 나오려다 도로 기어들어가는 것 같다. 현, 눈을 지그시 감고 고통을 참는다.

현 **눈**은 온다...... 꼭 온다...... 나를 죽이러 온다......

문득 먼 포성. 흠뻑 귀를 기울이는 현. 계속되는 포성.

현 천둥소리가? 아니 저건 포 소리 같은데...... 포 소리...... 포 소리가 분명해.

현의 목소리가 우릉우릉 굴속을 메아리쳐 굴러가며 거기 다시 환청으로 누구의 목소리가 메아리 되어 울리며,

“(오노오노 소노 도꼬로에 예시무) 모두들 각자의 자기 설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개인을 절대적 단위로 하고 무원칙적인 평등과 무제한한 자유를 목적으로 한 서구의 사회 질서는 극도의 혼란을 조장해 되었고 그 문명은 바야흐로 몰락의 과정에 이르게 된 것이며......”

S#56. 일본 제대 강의실 **과거**

칠판에 커다랗게 팔괘일우(八紘一宇) 휘갈겨 써 놓고 변사조의 강의를 계속하는 동양윤리학 교수 다카라. 멍한 얼굴로 강의를 듣는 현.

다카라 이때야말로 빛은 동방으로부터 첫손 미족이 쫓아갈 때는 당도한 것이다. (오노오노)...... 그것은 존재의 근화원리를 투시한 것이며 겸허한 인간 정신의 가치(고에 다카라니 우따우도노)...... 소리 드높여 노래하는 것이다. 역사적 대사명...... 팔괘일우 얼마나 장엄한 선언이냐?

장엄한 선언? 비웃듯 되물어보는 **현**의 표정.

다카라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 미영의 굴레에 억압된 황색민족을 해방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여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야 한다. 이 얼마나 비장하고 장엄한 사명이냐?

S#57. 동굴 안(밤) **현재**

눈감은 채 괴로워하는 현.

현 그래서?

S#58. 강의실 **과거**

다카라 (쪼르르 달려가 흑판에 대일본제국이라고 휘갈겨 쓰고) 따라서 우리 국민 각자는 이 거룩한 대의에 한 목숨 초개 같이 버려 천황 폐하의 황은에 보답해야 하는 것이다. 보라. 들에 노는 축생일지라도 그들 자신을 벌함으로써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그들의 한 가닥 뼈마져 인간을 위해 달게 바치고 있는 것이다.

S#59. 동굴 안(밤) **현재**

“(따지듯) 달게?”

- 선우휘 원작. 이은성 외 각색, 「불꽃」 -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88%**

- ① 인물의 내면 의식의 흐름을 중심으로 국이 진행되고 있다.
- ② 다양한 효과음이 활용되어 작품의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다.
- ③ 시간의 역전된 흐름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④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 ⑤ 공간의 변화에 의해 현실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나타난 장면 전환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1%**

< 보기 >

영화의 장면은 연속된 시간이나 공간으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공간이나 연속성을 벗어난 시간으로 장면이 전환되기도 한다. 서로 다른 공간이나 시간을 연결하는 경우, 두 장면의 연속성을 암시하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이는 주로 선·후행 장면에서 나타나는 **상황의 유사성**, 선·후행 장면 내의 소재나 **형상의 유사성**, 선·후행 장면에 포함된 **소리의 유사성** 등으로 표현된다.

- ① S#54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것과 S#55의 동굴 안은 어둠이라는 상황의 유사성을 이용한 장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군.
- ② S#55에서 굴속에서의 현의 목소리와 일본인 교수의 목소리는 메아리라는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S#56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군.
- ③ S#56에서 S#57로의 장면 전환은 교수의 강의에 대해 현이 반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의에 대한 반응'이라는 상황의 유사성으로 연결시키고 있군. (13%)
- ④ S#57에서 S#58로의 장면 전환은 괴로워하는 현의 신음 소리와 교수의 강의 소리라는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군.
- ⑤ S#58에서 S#59로의 장면 전환은 교수의 말의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달게'라고 반문하는 '현'의 말의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군.

45.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91%**

- ① ㉠은 '현'에 대한 '고영감'의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 ② ㉡은 이별의 시간이 되었음을 청각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 ③ ㉢은 '현'이 자신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하고 있다.
- ④ ㉣은 '현'의 부상이 심각한 상태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은 자신을 구해줄 사람에 대한 '현'의 기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X.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